

근대계몽기 재전당서포와 광문사의 출판과 그 특징 연구

박 용 찬*

- I. 서론
- II. 상업적 영리 지향과 방각본(坊刻本) 출판 : 재전당서포
- III. 근대지식(近代知識)의 보급과 애국계몽 출판 : 광문사
- I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근대계몽기 대구지역의 출판문화에 대한 연구이다. 대구는 조선후기 영영판(嶺營版)의 산지로 영남지역 선비문화를 주도하던 정신적 거점이다. 영남감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영영판(嶺營版)이나 종중(宗中) 또는 사찰(寺刹)의 출판물은 근대계몽기부터 활발히 전개된 대구·경북 지역 근·현대출판문화의 원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배경은 근대에 접어들면서 서울을 제외한 다른 어느 지역보다 대구·경북 지역이 출판매체를 많이 생산한 지역으로 자리잡게 만들었다.

근대계몽기 대구·경북의 출판계를 주도한 출판사는 재전당서포(在田堂書舖)와 광문사(廣文社)라 할 수 있다. 두 출판사가 발간한 서적들의 목록과 그

*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pyc245@knu.ac.kr

DOI URL: <http://dx.doi.org/10.18399/actako.2017..66.005>

내용을 살펴보면 서로간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재전당서포(在田堂書鋪)는 1910년 이전부터 대구의 김기홍(金琪鴻)이 경영한 출판사로 서적의 발간 및 판매를 겸하였다. 재전당서포는 유학서나 초학 교재류, 의학서, 방각본 고소설 등의 출판에 힘을 쏟았다. 재전당서포는 영리적 목적을 위해 목판본은 물론이고 연활자본 발간까지 시도하였다. 또한 다른 출판사의 판목을 구매하거나 빌려와 찍기도 하였다. 재전당서포는 그들이 발간한 서적을 대구 뿐만 아니라 서울 등지의 여러 곳에 발매소를 두고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재전당서포가 상업적 영리를 목적으로, 근대적 영업 전략을 구사한 출판사였음을 보여준다. 출판사로서 재전당서포는 방각본을 중심으로 한 구식 출판을 지향하고 있었으나 판매대행, 즉 발매소로서의 재전당서포는 신구서적을 가리지 않고 판매하는 근대적 의미의 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광문사는 주로 전통적 유학서나 실용서적을 출판하고 있던 재전당서포와 달리 개화기의 주류담론이었던 신교육이나 신문명과 관련된 계몽서적을 주로 발간하였다. 광문사 사장 김광제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부사장 서상돈(徐相敦)과 함께 광문사를 통해 교과용 도서 같은 각종 계몽서적을 발간하는 한편,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광문사의 출판활동은 1906에서 1908년 사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김광제, 서상돈이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던 시기가 1907년임을 감안할 때, 『월남망국사』나 『중국혼』의 출간 또한 이들의 애국계몽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광문사는 역사전기물 이외에도 다양한 출판을 시도하였는데 주로 서양의 근대지식 전파와 관련된 도서들이다. 이들은 주로 근대계몽기에 세워진 신식학교에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들이라 할 수 있다. 이 당시 교과용 도서들은 서울 지역의 출판사에서 많이 발간하였는데, 대구의 광문사에서 『유몽회편』(1906), 『만국공법요략』(1906), 『중등산학』(1907), 『상업학』(1908), 『경제교과서』(1908) 등을 발간하였다. 광문사는 재전당서포처럼 유학과 관련된 구식출판이 아니라 『유몽회편』 이후로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신식출판을 시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광문사는 한편으로는 근대지식 보급을 위한 신식 학교의 교과용

도서를 기획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애국계몽의 전략을 구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중세와 근대가 충돌하고 있던 근대계몽기 대구의 문학 공간에서 재전당서포와 광문사가 수행한 역할에 대한 실증적 접근은 근대 초기 지역의 출판문화사를 재구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재전당서포로부터 향민사까지 이어져 내려온 대구·경북 지역의 근대출판은 때때로 상업적, 계몽적 욕구와 마주치면서 출판문화 공간을 다채롭게 만들어 내었다.

◆ 주제어

재전당서포, 광문사, 대구, 출판활동, 방각본, 애국계몽운동, 영영관, 근대계몽기

I. 서론

한 나라의 문화는 그 나라의 지역문화들이 모여서 형성된다. 최근 들어 지역학이나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도 이러한 근본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학문의 글로벌화 못지않게 지역학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이때문이다.

대구·경북 지역은 신라시대 향가나 조선시대 시조와 가사, 소설 등이 활발하게 창작되었고, 이들 작품들의 필사 또한 해방 이후까지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장소이다. 이러한 문학적 자산은 서책 출판과 연계되면서 영남을 출판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시켰다. 대구·경북은 영남감영뿐만 아니라 문중, 사찰, 서원 등을 중심으로 족보, 문집, 불경 및 각종 유학 관련 서적들이 활발하게 간행된 지역이다. 책자를 인쇄하던 목판 유물 또한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이 남아 있는데, 짧은 시간 안에 거둔 한국국학진흥원의 성과¹⁾는 그러한 면모를 잘 보여준다. 영영판(嶺營版)의 발원지로서 대구·경북이 갖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근대계몽기를 전후한 출판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경상도 관찰사였던 박중양(朴重陽)에 의해 대구 읍성이 헐리면서 일본인 상권이 대구 중심부로 밀려들어오고, 북성로(北城路)를 중심으로 한 식민지 근대도시가 탄생하게 된다. 그렇지만 여전히 대구는 중세와 근대가 혼재하고 있던 도시였다. 학당, 학교를 중심으로 전파된 교육과 계몽의 논리 속에 유가적 사고와 근대적 사고가 서로 충돌하고 있었다. 한문의 위상이 달라진 1900년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문집이 간행되었다는 사실²⁾은 일제강점기에

1) 1995년에 법인 설립이 허가된 한국국학진흥원은 목판 10만장 수집운동을 선포하면서, 2006년 유교목판 5만점을, 2014년 국학자료 40만점을 수집하였다. 2015년에는 유교 책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2016년에는 한국의 편액이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한국국학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reastudy.or.kr>) 연혁 부분 참고.

2) 일제강점기 구출판의 상황에 대해 아래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문집의 간행 주체는 대부분 일제가 주도하는 학교교육을 거부하고 서당을 통해 독자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 위정척사 계열의 학자들이었다. 간행 대상은 신라 최치원부터

도 여전히 구출판이 성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근대계몽기 이후에도 출판의 내용이나 방식에서 구식 출판과 신식 출판이 서로 경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전통서당이나 근대의 신식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작가들 또한 유교, 동학, 기독교, 아나키즘, 마르크시즘 등을 넘나들면서 전통사상과 외래사상의 경계에서 자신들의 문학적 정체성을 모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생각이나 사상들은 글이나 말로 나타나게 마련이고, 이러한 것이 집약되어 발간된 것이 출판매체라 할 수 있다.

출판매체는 작가들의 정신적 자취와 고투의 흔적이 드러나는 정신문화의 부산물이다. 여기에 실린 내용들은 저자의 내적 욕망이 응결된 기호들의 집합체이다. 그러므로 출판매체는 정신문화를 담아내는 물질적 그릇이라 할 수 있다.³⁾ 근대에 접어들면서 출판매체의 생산은 주로 상업적 출판사들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대구·경북 지역의 근대출판 내지 상업적 출판사에 대해서는

일제강점 당대에 이르기까지 학문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두드러진 인물을 두루 망라하다시피 하였다. 그리고 이전에 간행된 문집을 중간하기도 하고, 이전에 간행되지 못했던 것을 신간하기도 하며, 동일한 인물의 문집을 판종을 달리하여 2회 이상 간행하기도 하고, 100권이 넘는 분량을 모두 완간하기도 하는 등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두드러진 간행 양상을 보였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문집 간행의 주체 또한 위정척사 계열의 학자가 많았으며, 전통적인 목판이나 목활자가 아닌 석인본이 가장 흔하였다. 수록한 글의 종류와 내용에 있어서도 표전(表箋), 상계(狀啓), 대책류(對策類)는 대부분 사라졌고, 판습으로 뿌리내린 서찰과 의례용 시문의 비중이 압도적이었으며,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한 글이 다양하게 추가되는 등 이전 시대의 문집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황위주, 『일제강점기 문집 편찬과 대구·경북지역의 상황』, 『대동한문학』 49, 대동한문학회, 2016. 12. 36~37쪽.

- 3) 출판매체는 지식인이나 대중들의 의식을 계몽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한다. 출판매체는 이들 매체를 기획하는 기관이나 작가, 편집진들의 취향이나 이데올로기가 개입되기 마련이다. 잡지, 신문, 동인지, 시집 등의 각 단행본은 근대문화의 부산물이다. 근대문학이 학교, 신문, 잡지, 출판, 등단 등의 각종 제도와 관련되어 논의될 때 매체가 차지하는 역할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문학을 둘러싼 각종 기술적 담론들이 근대의 출판매체를 통해 문자문화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격변의 근현대사 속에 남아있는 제반 출판매체들은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중요 자료들이다. 출판매체는 당대든 후대든 기억과 진과의 가장 유용한 형식으로 자리매김 된다. 박용찬, 「출판매체를 통해 본 근대문학 공간의 형성과 대구」, 『어문론총』 55, 한국문학어문학회, 2011. 12. 36쪽.

아직까지 본격적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지역학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대구·경북지역의 출판매체 및 문학공간에 대한 접근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⁴⁾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근대가 학교, 출판, 신문 등의 각종 제도와 맞물려 형성된다고 할 때, 각종 매체의 생산, 유통, 소비에 중심에 위치한 출판사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영영관의 산지였던 대구·경북에서 근대계몽기의 경우 어떠한 출판사가 출판을 주도하고 있었던가? 또 이 시기 대구·경북 지역에 존립하였던 출판사의 역할과 특성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에 대한 규명이 본고의 주된 목적이 된다.

II. 상업적 영리 지향과 방각본 출판 : 재전당서포

근대계몽기 대구·경북의 출판계를 주도한 출판사는 재전당서포(在田堂書鋪)와 광문사(廣文社)라 할 수 있다. 칠성당서포(七星堂書鋪)도 있었으나 두 출판사에 비해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는 못하였다. 칠성당서포(발행인 최선

-
- 4) 류탁일, 「대구지방 간행 달관방각본에 대하여」, 『서지학연구』 3, 서지학회, 1988.
류준경, 「달관 방각본 연구」, 『한국문화』 35,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5.
최호석, 「대구 재전당서포의 출판활동 연구」, 『어문연구』 34-4, 2006.
대구·경북인쇄조합45년사 편집위원회, 『대구·경북인쇄조합45년사』,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6.
박용찬, 「출판매체를 통해 본 근대문학 공간의 형성과 대구」, 『어문론총』 55, 한국문학언어학회, 2011. 12.
박용찬, 「1950년대 대구의 문학공간 형성과 출판매체」, 『국어교육연구』 51, 국어교육학회, 2012. 8.
박용찬, 「근대계몽기 대구의 문학장 형성과 우현서루」, 『국어교육연구』 56, 국어교육학회, 2014. 10.
박태일, 「대구지역 딱지본 출판의 전통」, 『현대문학이론연구』 66, 현대문학이론학회, 2016.
박태일, 「경북·대구 지역의 대중가사 출판」, 『열린정신 인문연구』 17(3), 원광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12.

일)에서 발간된 서적으로는 현재 『통감절요(通鑑節要)』만 확인되고 있어,⁵⁾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조선후기 경상도 지역에서는 영남감영이나 사찰, 문중 등을 통해 활자본, 목판본 등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었다. 그러나 관(官)이나 사찰, 문중 주도의 이러한 출판은 근대적 의미의 출판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포부를 실현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출판사업이 좀더 근대적인 것에 가깝다면, 방각본(坊刻本) 발간이 일단 주목의 대상이 된다.

방각본은 민간출판업자가 상업적 이익, 즉 영리를 목적으로 목판에 새겨 찍어낸 서적을 말한다. 그러므로 방각본 간행의 주체는 관이 아닌 민간업자들이다.⁶⁾ 방각본의 관중의 범위를 넓게 보면 “목활자본, 목판본, 토판본, 석판본, 연활자본”⁷⁾까지 해당된다. 서울의 경판본(京板本), 전주의 완판본(完板本), 안성의 안성판본(安城板本), 태인(泰仁)의 손기조(孫基祖), 전이채·박치유(田以采·朴致維) 본 등의 방각본이 19세기말까지 크게 성행하였다. 경상도 지역에서의 방각본 출판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늦게 시작되었다. 서울, 안성(安城), 전주(全州), 태인(泰仁) 등에서 방각본이 주로 발간되었는데, 그 지역들은 대개 상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모여들어 시장이 크게 형성된 곳이었다. 방각본은 17세기부터 그 존재가 자주 드러나며⁸⁾, 류탁일은 서울지방은 19세기 중엽, 전주지방은 19세기말과 20세기초, 대구지방은 전주지방보

5) 류준경, 「달관 방각본 연구」, 『한국문화』 35,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5, 35쪽 ; 전시도록 『영남출판문화의 꽃, 영영장판과 목판본』, 경북대학교 박물관,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7, 67쪽 도판 참고.

6) 방(坊)이란 동네 또는 읍리(邑里)의 뜻 이외에 저자(市), 즉 상고무역(商賈貿易)하는 곳을 뜻하며, 저자의 뜻으로 방한(坊間), 방시(坊市), 방사(坊肆), 방고(坊賈)의 용어를 사용한 데서 방각본이 관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용어는 본시 중국의 남송 때 서방 또는 방사에서 민간이 판매의 목적으로 책을 목판에 새겨 찍어낸 데서 쓰여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헌을 상고하면 책을 찍어 파는 곳을 서사(書肆), 방사(坊肆), 서방(書房), 서포(書鋪) 등으로 다양하게 일컫고 있으나, 어느 것이든 오늘날의 책방 또는 서점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 천혜봉, 『한국서지학』, 민음사, 1997, 230쪽.

7) 류탁일, 『완판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학문사, 1981, 64쪽.

8) 천혜봉, 앞의 책, 232-234쪽.

다 늦은 20세기에 시작하여 1910년 전후에 유행하였다고 본다.⁹⁾

대구지역의 방각본 출간은 시장성이나 제반 환경에 비해 상당히 늦었는데, 이러한 원인을 몇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영남감영(嶺南監營)이 다른 지역의 감영보다 많은 출판물 다양하게 지속해 왔다는 점이다.¹⁰⁾ 둘째 영남 유림들이 산재해 있던 이 지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방각본 출판보다도 문중이나 개인, 사찰 중심의 족보나 문집, 불경이 중심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셋째 경판본이나 완판본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고소설의 경우 영남지역 독자층이 방각본 소설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다.¹¹⁾ 한 조사에 의하면 대구·경북의 향유층이 방각본 발행이 용이한 춘향전, 홍길동전 같은 전책(傳冊)보다 유씨삼대록, 창선감의록 같은 록책(錄冊)을 선호하였다는 점을 들기도 한다.¹²⁾ 경상북도 북부 지역 고전소설의 독자들은 대부분 보수적인 양가(良家)의 여인들이었으며, 이들 상층계급 여인들은 자연스레 가문 중심의 장편고전소설을 선호하였고, 장편대하소설은 필사본으로 유통되고 있었음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근대 이전이나 이후 대구가 교통 교역 도시의 중심이라는 환경 내지 경제지리적

9) 류탁일, 「대구지방 간행 달판방각본에 대하여」, 『서지학연구』 3, 서지학회, 1988, 69쪽.

10) 류탁일은 대구지방 방각본이 늦게 간행된 이유로 영남감영의 서적 간행을 들고 있다. 영남감영은 다른 감영보다 경서류(經書類), 유가류(儒家類), 사서류(史書類), 의가류(醫家類), 시문류(詩文類) 등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월등히 많이 간행하였는데, 이 지역의 필요서적을 영남감영 간본으로 충당했으리라 보고 있다. 무인년(1878년)에도 경서(經書)를 간행한 것을 볼 때 대구지방에서의 방각본 출간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이다. 즉 영남감영간본들이 19세기말까지도 수요자의 다양한 서적 요구를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자연 민간의 영리적 출판인 방각본은 간행이 쉽지 않았다고 보았다. 류탁일, 위의 논문, 88쪽.

11) 국문소설의 주 독자층은 여성들이었는데, 영남지방에서 이들은 심심파적으로 책을 베끼기도 하고 글씨를 쓰기 위해 소설 내용을 등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소설의 유통은 사본(寫本)에서 사본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인쇄된 방각본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추측은 대구·경북 지방에서 지금 전하는 수많은 필사본 소설이나 가사들을 볼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류탁일, 위의 논문, 89쪽.

12) 이원주, 「고전소설 독자의 성향 -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80, 560-562쪽.

특성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 근대에 접어들면서는 서울 부산간 경부선 철도의 중심지로서의 대구의 지리적 특성과 근대의 왕성했던 출판유통 환경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 출간된 방각본의 유입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대구가 딱지본 출판과 유통이 성행하는 장소로 기능하는 데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¹³⁾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방각본 출판은 재전당서포(在田堂書鋪)에 와서야 활성화되었다. 재전당서포(在田堂書鋪)는 1910년 이전부터 대구의 김기홍(金琪鴻)이 경영한 출판사로 서적의 발간 및 판매를 겸하였다. 재전당서포는 1900년대초부터 대구에서 방각본 간행을 시도한 출판사였다. 재전당서포를 중심으로 한 대구의 방각본 출판은 1920년대를 넘어서면서 연활자(鉛活字)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딱지본 고소설까지 생산하게 된다. 재전당서포에서 발간한 중요 서적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동몽선습』. 목판, 1책.
- 『보유신편(保幼新編)』, 목판, 1책.
- 『고금역대표제주석십구사략통고』, 목판, 1책
- 『소미가속점교부음통감절요(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목판.
- 『주해천자문(註解千字文)』, 목판, 1책
- 『부별천자문(部別千字文)』, 목판, 1책
- 『상례비요(喪禮備要)』, 목판, 2책
- 『대학장구대전』, 목판, 1책.
- 『대학언해』, 목판, 1책.
- 『효경대의』, 목판, 1책.
- 『효경언해』, 목판, 1책.
- 『주서백선(朱書百選)』, 목판, 3책.
- 『통학경편(通學經編)』, 목판, 1책.
- 『의감중마(醫鑑重磨)』, 목판, 3책.

13) 박태일, 「대구 지역과 딱지본 출판의 전통」, 『현대문학이론연구』 66, 2016, 144-145쪽.

- 『일선문사체천자문(日鮮文四體千字文)』, 목판, 1책.
- 『통감구해(通鑑句解)』, 목판, 연활자, 3책.
- 『진본황극책수(眞本皇極策數)』, 연활자, 1책.
- 『필감 부 진초천자문(筆鑑附眞草千字文)』, 연활자, 1책.
- 『옥단춘전』, 연활자, 1책.
- 『권익중전』, 연활자, 1책.
- 『박효낭전』, 연활자, 1책.

위의 목록은 재전당서포가 발간한 전체의 목록이 아니지만 이를 통해서 재전당서포의 출판 경향을 짐작해 볼 수 있다.¹⁴⁾ 재전당서포는 유학서나 초학 교재류, 의학서, 방각본 고소설 등의 출판에 힘을 쏟았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방각본 출판사의 출판 목록과 별반 다름이 없었다. 방각본으로 발간된 대부분의 서적들이 “아동의 학습용 교재를 비롯하여 과거(科擧) 및 교육용의 경서, 역사서 및 시문류, 일상생활에 긴요한 각종 자료, 이를테면 예의제서(禮儀諸書), 한의서(韓醫書), 농가서(農家書), 산학서(算學書), 술수서(術數書), 간독집(簡牘集), 그리고 서민들 사이에서 읽혀진 한글 소설류가 주류”¹⁵⁾란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재전당서포는 영리적 목적을 위해 목판본은 물론이고 연활자본 발간까지 시도하였다.¹⁶⁾ 또한 재전당서포에서 발간한 책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출판사의 판목을 구매하거나 빌려와 찍기도 하였다.¹⁷⁾ 전라도 태인(泰仁)에서 발간

14) 재전당서포의 발간 목록으로 류준경은 목판 25종, 연활자 내지 석판본 17종을, 최호석은 목판, 연활자 모두 합쳐 98종을 제시하고 있다. 인용된 목록은 재전당서포 발간 도서 중 필자가 재전당서포의 출판경향과 관련해 필자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선정한 것이다. 류준경(2005)과 최호석(2006)의 앞의 논문 참고.

15) 천혜봉, 앞의 책, 234쪽.

16) 연활자본으로 박희은, 『혼상비람(婚喪備覽)』, 재전당서포, 1924; 김기홍, 『전체대용(全體大用)』, 재전당서포, 1929 등이 있음.

17) 경북 영천군 신녕면의 황응두(黃應斗)가 저작자인 『통학경편』의 판권지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통학경편』은 현재 세 개의 다른 판본이 존재한다. 첫 번째 판본은 1916년 간행된 석판본(영천군수 남필우의 서문, 인쇄소 대구부 대화정 만성당석판인쇄소, 발행소 혜연서루, 발매소 신구서포), 두 번째 판본은 1917년에 간행된 목

한 방각본을 복각하여 발행하기도 하였으며, 영남감영에서 간행한 책들도 인출, 판권지를 재전당서포로 붙여 판매하기도 하였다.¹⁸⁾ 재전당서포는 그들이 발간한 서책을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 등지의 여러 곳에 발매소를 두고 판매하고자 하였다.¹⁹⁾ 이러한 사실은 재전당서포가 근대적 영업 전략을 시도한 출판사였음을 보여준다. 재전당서포는 출판사와 발매소를 겸하고 있었기에 재전당서포의 도장이 찍힌 책자가 대구지역 대학의 도서관이나 대구 인근의 고서점에서 자주 발견된다. 이들 책자들은 재전당서포가 간행한 책자라기보다는 재전당서포에서 판매했던 책자라 보면 더 정확할 것이다. 융희 연간에 발행된 재전당서포의 『출판발매목록』을 보면 ‘신구학문대헐가판매총목(新舊學文大歇價販賣總目)’이란 이름하에 역사지리류, 관민용법(官民用法)류, 교과서류, 지도류, 요용잡서급소설(要用雜書及小說), 어학(語學), 산술, 의학, 지리급역도문(地理及易道門), 일용예문(日用禮文)류, 경자서(經子書)류 등의 책을 발매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²⁰⁾ 대구광문사에서 발행한 서적들도 일부 보인다. 이 중 <교과서목록>과 <요용잡서급소설목록(要用雜書及小說目錄)>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판본(남필우의 서문, 유한필의 발문, 발행소 영천 해연서루, 발매소 대구 영흥서림), 세 번째 판본은 이전의 판본을 개편·증보한 목판본으로 1921년에 간행(인쇄겸 발행소 영천 해연서루, 총발매소 대구 영흥서림)이다. 1921년판과 동일한 판본인데 인쇄겸발행소가 해연서림에서 재전당서포로, 총발매소가 영흥서림에서 재전당서포로 바뀐 책이 발견된다. 류준경은 재전당서포가 1921년 이후 어느 시점에 해연서루에서 발행한 이 판목을 인수하여 판권기의 발행인과 발매소를 수정하여 판매한 것이라 추정하였다. 류준경, 「달관 방각본 연구」, 『한국문화』 35,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5, 60-61쪽.

- 18) 류준경, 위의 논문, 68-71쪽. 류탁일, 앞의 논문, 80쪽 참고.
 19) 1909년 발간된 『보유신편』은 인쇄소 대구 재전당서포/ 발행자 대구 재전당서포 김기홍/ 발매소 경성(京城) 광고(廣橋) 회동서관(匯東書館) 고유상(高裕相), 경향(京鄕) 유명서포(有名書舖)로 되어 있다.
 20) 재전당서포, 『내외국서적 출판발매목록』, 융희 년 월 일. 표지에 ‘경상북도 대구군 동상(東上) 후동(後洞) 서포 김기홍 재전당 실가어매(實價御賣)’란 표기가 되어 있다.

<교과서 목록>

신찬소박물학	1책	50전	
신찬소물리학	1책	50전	
신편박물학	1책	70전	
가정학	1책	30전	
가정교육학	1책	30전	
초등소학	4책	1원 50전	
고등소학독본	2책	50전	
중등 수신교과서	2책	60전	
유년필독	2책	80전	
유년필독서의	2책	1원 30전	
대한지지 付地圖	2책	75전	
대한신지지 付地圖	3책	1원 10전	
경제학	1책	90전	
신찬 지문학	1책	40전	
초등지리교과서	1책	70전	
국민소학독본	1책	60전	
생리위생학 付圖	1책	40전	
중등생리학 付圖 醫家要用	2책	90전	
농정신편	1책	50전	
근세식물교과	1책	60전	
상업학	1책	50전	
이태리독립사	1책		
간명물리학	1책		
초등용 간명물리교과서	1책	40전	
고등소학 수신서 全	1책	25권	

<요용잡서급소설목록(要用雜書及小說目錄)>

20세기소설론	1책	35전	
애급근세사	1책	40전	
진명회론	1책	40전	
세계일람	1책	20전	
음빙실문집	2책	5원	
음빙실자유서	1책	50전	
월사집(月沙집)	27책	11원	
미국독립사	1책	40전	
파란말년전사	1책	40전	

근대계몽기 재전당서포와 광문사의 출판과 그 특징 연구(박용찬)

천독완편	2책	1원 50전	
준비시대	1책	15전	
조선명장전 국한문	1책	45전	
주해 서상기 국한문	1책	1원 20전	
서상기 한문	6책	70전	
신소설 귀성(鬼聲)	1책	30전	
신소설 혈루(血淚)	1책	20전	
애국부인전	1책	15전	
라란부인전	1책	5전 5리	
격치문답(格致問答)	1책	50전	
증보 중국훈	2책		
오위인소역사(五偉人小歷史)	1책	13전	
라마사(羅馬史)	1책	40전	
인공양잠	1책	30전	
제상전서(裁桑全書)	1책	50전	
대동문수	1책	75전	
전등신화	1책	1원	
삼국지 大板二匣	16책	2원90전	
삼국지 全一匣	10책	2원	
동래박의	6책	1원50전	
귀곡자(鬼谷子)	2책	45전	
기담일소(奇談一笑)	1책	19전	
수호지 大板	4책	1원 60전	
연설법방	1책	40전	
여면담(如面談)	6책	1원 10전	
수세금낭(酬世錦囊)	6책	1원	
십죽재 大板一匣	8책	3원	
개자원 四匣	12책	3원	
권학문	2책	30전	
백미고사	6책	1원 10전	
월남망국사	1책	25전	
보법전기(普法戰記)	1책	45전	
양한연의(兩漢演義)	6책	1원 60전	
언간독(諺簡牘)	1책	20전	
초간(草簡)	1책	30전	
시행간례(時行簡禮)	1책	45전	
한헌답록(寒暄割錄)	3책	1원 10전	
천세력	2책	1원	

무경칠서(武經七書)	5책	1원 50전	
손무자(孫武子)	6책	1원 30전	
유서필지	1책	40전	
임신론(妊娠論)			

위의 판매목록은 발매소로서의 재전당서포의 모습을 밝혀줄 수 있는 자료이다. 판매목록을 살펴보면 재전당서포는 자신들이 출판한 서적 발매 외에도, 경향(京鄕) 각지에서 출판한 근대계몽기의 여러 서적들을 판매 대행하던 서적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목록의 ‘출판발매’란 표기는 재전당서포가 출판사와 발매소를 겸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판매목록 항목의 분류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이를 통해 볼 때 재전당서포는 개화기의 교과용 도서는 물론이고 『혈의 누』, 『귀의 성』 같은 신소설류 및 『애급근세사』, 『이태리독립사』, 『월남망국사』, 『보법전기』, 『애국부인전』, 『중국혼』, 『과란말년전사』 같은 다량의 역사전기문학까지 판매하고 있었다. 출판사로서의 재전당서포는 방각본을 중심으로 구독자를 겨냥한 구식출판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판매대행소로서의 재전당서포는 신구(新舊) 서적을 가리지 않고 판매하는 근대적 의미의 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Ⅲ. 근대지식(近代知識)의 보급과 애국계몽 출판 : 광문사

1900년대 중후반 대구지역에서 재전당서포에 맞설 수 있는 출판사는 광문사(廣文社)였다. 광문사는 주로 전통적 유학서나 실용서적을 출판하고 있던 재전당서포나 칠성당서포(七星堂書鋪)와 달리 개화기의 주류담론이었던 신교육이나 신문명과 관련된 계몽서적을 발간하였다. 대구광문사의 사장은 김광제(金光濟)였다. 김광제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광문사와 대동보사(大同報社) 사장으로 있으면서 광문사 부사장 서상돈(徐相敦)과 함께 각종 계몽서적을 발간하는 한편,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대구의 광문사는

“1906년 1월, 한때 황국협회의 기관지였던 『시사총보(時事叢報)』를 접수하여 시대에 맞도록 개화자강 노선에 따라 개편한 출판사”²¹⁾였다. 이들은 대구광문사 안에 ‘대구광문회’란 문회를 두어 신교육과 자강운동을 추진하게 하였다. 국채보상운동의 시작은 1907년 1월 29일 문회(대구광문회)의 회명을 대동광문회라 개칭하는 특별회의가 끝나고 부사장인 서상돈이 국채보상운동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대구광문사의 회명을 대동광문회라 개칭하는 일로 음력 12월 16일(1907년 1월 29일)에 특별회를 열고 사무를 끝낸 후에 회원 서상돈씨가 동의하기를 국채 일천 삼백만원의 감지 못하면 장차 토지라도 허급할거신대 지금 국고금으로는 갚지 못할지라. 우리 이천만 동포가 담배를 석달만 끊고 그 대금을 이 십전씩만 수합하면 그 빚을 갚을 터인데 우리나라 인종이 강단과 열심이 없어 일제히 담배끊기 극난하다 하나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충의를 주상한던 바라. 어찌 힘 아니 드는 담배 석달이야 못 끊을 자 어디 있으며 설혹 사람마다 못 끊더라도 일원으로 천백원까지 낼 사람이 많을지니 무엇을 근심하리오. 나부터 팔백원을 내노라 한 대 만장이 일치하여 서상돈씨의 동의가 같다 한단지라. 광문사 사장 김광제씨가 말하기를 이 일은 개 왈가라(모두 옳다) 하니 물론 모 사하고 실시하는 것이 귀훈인즉 당장에 실시하노라 하고 연죽(담뱃대)과 초갑(담배쌈지)을 없이 하고 삼삭 담뱃값 료십전과 돈 십원을 내니 제인(諸人)이 다 회장의 결심을 찬성하며 담배 끊은 자 무수하고 각각 출의하여 당장에 이천여원에 달하였고 그 회장은 박해령씨로 추천되야 각군에 통첩하였는데 일본 헌병도 그 회사에 와서 사실을 탐지하고 그러이 여겼다더라.²²⁾

을사늑약 이후 대한제국이 안고 있던 1천 3백만원의 부채는 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적 침략을 수행하기 위한 일제의 차관 공세 때문이었다. 국채보상운동은 이러한 일제의 침략 행위에 대한 경종이자 선각자와 민중들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던 항일구국의식이 발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채보상운동의 취지가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등을 통

21) 『책임을 다하다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편, 2015, 23쪽.

22) 「국채보상계」, 『대한자강회월보』 9호, 1907. 3, 72쪽.

해 보도되면서 이 운동은 대구를 넘어 전국 각지로 퍼져 나갔다. 경술(庚戌) 국치(國恥) 이전의 대구는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중심지로, 민족 계몽의식이 충만한 장소였다.

대구광문사가 대동광문회(大東廣文會)를 통해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 역할을 한 것을 볼 때, 광문사가 단순히 상업적 영리만을 추구하던 출판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광문사의 주요 사업을 “도내 각 군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²³⁾이라는 사장 김광제의 연설은 광문사의 설립 목적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광문사는 김광제, 서상돈 같은 의식 있는 개화지식인이 주축이 된 출판사였다. 그들은 출판을 통해 근대지식 보급과 민족 계몽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민족계몽운동을 주도해 가는데 출판사로서 광문사가 한 역할 또한 적지 않았다. 지금까지 필자가 확인한 광문사가 발간한 서적들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²⁴⁾

- 『유몽휘편(膺蒙彙編)』 상하 1책, 달성광문사, 1906.
- 『만국공법요약(萬國公法要略)』, 달성광문사 중간, 1906.
- 『월남망국사(越南亡國史)』, 현채 역, 달성광문사, 1907.
- 『중국혼(中國魂)』 상·하, 음빙실주인 편집, 대구광학회 동인, 대구광문사, 1907.; 국한문본, 1908.
- 『중등산학(中等算學)』, 이원조 찬, 김광제 교열, 대구광문사, 1907.
- 『상업학(商業學)』, 장지연 역, 달성광문사, 1908.
- 『경제교과서(經濟教科書)』, 이병태 역, 대구광문사, 1908.

광문사에서 출판된 위의 서적들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유학서인 문집이나 경서(經書)류의 책들은 제외되어 있다.²⁵⁾ 이로 미루어 볼 때 광문사는 처음

23) 김광제, 「국채보상발기회 연설」, 『책임을 다하다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편, 2015, 26-27쪽.

24) 박용찬, 「출판매체를 통해 본 근대문학 공간의 형성과 대구」, 『어문론총』 55, 한국문학언어학회, 2011, 39쪽. 이 부분에 있는 목록 일부를 보완하였음.

25) 광무 5년(1901) 정약용의 『흠흠신서(欽欽新書)』(전 4권)나 『목민심서(牧民心書)』(전 4권)가 ‘광문사(廣文社) 신간(新刊)’이란 표제로 발간되었는데, 이는 대구광문사

부터 교과용 도서나 애국계몽서적을 중심으로 한 신식출판을 표방한 것으로 보인다.

『유몽회편』은 이미 1895년 대한제국 학부 편집국에서 이동용 교과용 도서로 목활자로 발간한 바 있다. 『국민소학독본』, 『소학독본』, 『숙해기략』, 『신정심상소학』 등과 함께 발간된 『유몽회편』은 학부의 교과용 도서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1906년 달성광문사에서 『유몽회편』 상하 1책을 다시 목판본으로 발간하였는데, 이는 영남지역에서 교과용 도서 수요가 많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몽회편』은 현재 발견된 광문사 책 중 유일하게 한지 바탕에 목판으로 찍은 구출판 방식의 책자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이후 『만국공법요약』, 『월남망국사』, 『중국혼』, 『중등산학』, 『상업학』 등 나머지 도서들은 모두 신식 연활자 인쇄방식을 따랐다. 이 중 『상업학』이나 『중등산학』, 『경제교과서』 등은 신식 학교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교과용 도서인데 반해, 『월남망국사』나 『중국혼』 등은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애국계몽 서적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광문사는 두 가지 출판 전략을 구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신식학교의 교과용 도서를 기획하는 계몽의 전략을,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애국계몽의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는 방각본을 바탕으로 구식 출판을 시도하고 있던 재전당서포와는 그 시작부터 출판 방향이 달랐다고 할 수 있다. 『중국혼(中國魂)』이나 『월남망국사(越南亡國史)』는 비록 번역서이기는 하나 당시의 국내 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한 책자이다.

『중국혼』은 청(淸)말의 개화지식인 양계초(梁啓超)의 저술이다. 양계초는 무술변법운동(1898), 신해혁명(1911), 5·4운동(1919) 등의 큰 역사적 변혁을 거치면서 신문, 잡지 및 교육을 기반으로 변법유신을 도모하고, 서구 자본주의의 정치·사회·경제·법률학 및 기타 과학사상 등 근대화된 서구문명을 소개하고자 한 자강론적 계몽주의 사상가였다. 양계초는 『시무보(時務報)』

와 완전히 다른 출판사이다. 대구광문사는 1906년 설립되었으며, 김광제가 주도하던 광문사는 대구광문사, 달성광문사란 표기를 반드시 쓰고 있음이 확인된다.

(1896), 『청의보(淸議報)』(1898), 『신민총보(新民叢報)』(1902) 등 언론과 강학회(強學會), 대동학회(大同學會) 등의 학회·학교 활동을 통해 중국의 개혁 시키고자 하였다.²⁶⁾ 양계초는 스승 강유에이(康有爲)와 더불어 변법유신에 참여하였으나 무술(戊戌) 변법운동이 서태후(西太后) 등에 의해 실패로 돌아가자, 일본으로 망명하여 『청의보(淸議報)』(1898~1901)와 『신민총보(新民叢報)』(1902~1907) 등을 창간하였다.

양계초는 『청의보(淸議報)』와 『신민총보(新民叢報)』 등에 실린 초기의 대표적 문장을 편집하여, 1902년 광지서국(廣智書局)에서 『중국혼』(2책)을 발행하였다.²⁷⁾ 『중국혼』은 격랑에 처한 근대전환기 중국에서 ‘국혼(國魂)’의 호명을 통해 국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세계사의 조류 속에 중국의 앞날을 논의하고자 한 책자이다. 『중국혼』의 국내 유입은 광문사를 통해 처음 이루어졌다. 1907년 간행된 『중국혼』 초판의 발행인은 대구광학회동인(大邱廣學會同人)이며, 인쇄소는 대구광문사(大邱廣文社)이다. 상, 하 두 책으로 출판된 이 책은 양계초가 쓴 원문을 그대로 가져왔다. 1년 후인 1908년에 대중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한문혼용체 상, 하 합본으로 다시 발간하였는데, 발행소는 대구석실포(大邱石室舖), 인쇄소 달성광문사(達城廣文社)로 되어 있다. 이 책은 지나인(支那人) 양계초(梁啓超)가 저술한 것을 한국(韓國) 송산인(嵩山人) 장지연(張志淵)이 역술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개화기 상해(上海)에서 발행된 『음빙실문집(飲氷室文集)』이나 『음빙실자유서(飲氷室自由序)』 등 양계초의 문집들은 개화기 애국계몽론자들에게는 필독서라 할 수 있었다. 양계초의 문집에 실려있던 『이태리건국삼걸전』, 『중국혼』, 『월남망국사』, 『헝가리아국자갈소사전』, 『근세제일여걸 라란부인전』 등이 뜻있는 지식인들에 의해 번역된 바도 있다. 이 중 『중국혼』은 다른 출판사에서는 발간된 적이 없고, 광문사에서만 두 번 출판되었다. 이는 번역 책자를 선택할 때에도 광문사가

26) 최형욱, 「량치차오의 학술세계와 그 문학혁명운동」, 『오늘의 문예비평』, 2003. 5(여름), 255-257쪽 참고.

27) 차태근, 「량치차오(梁啓超)와 중국 국민성 담론」, 『중국현대문학』 45,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8, 23-24쪽.

매우 신중을 기했음을 보여준다. 애국계몽운동의 취지에 부합되는 서적의 간행은 광문사가 행한 주요 출판 전략의 하나였다. 『월남망국사』의 발간도 마찬가지이다.

광문사는 양계초가 찬(纂)한 『월남망국사(越南亡國史)』를 발간하였는데, 1900년대 『월남망국사』의 발간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문 연재(6회), 「讀越南亡國史」, 황성신문, 1906. 8. 28 ~ 9. 3.
- 현 채 역, 『越南亡國史』, 국한문혼용본, 1906. 11, 보성관 ; 1907. 5. 27, 재간.²⁸⁾
- 주시경 역, 『월남망국스』, 국문본, 로익형 칙스, 1907. 11. 30, 초판 ; 1908. 3. 10, 2판 ; 1908. 6. 15, 3판.²⁹⁾
- 리상익 역술, 현공림 교, 『월남망국스』, 국문본, 1907. 11. 21.³⁰⁾
- 현채 역, 『越南亡國史』, 국한문혼용본, 달성광문사, 1907. 5.

『월남망국사』의 이본으로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다섯 종류가 남아 있다. 단행본으로 발간되지는 않았지만 국내에 가장 먼저 소개된 「독월남망국사(讀越南亡國史)」는 황성신문 연재본이다. 이는 『월남망국사』의 첫 국내 번역이라 할 수 있는데 저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³¹⁾ 『월남망국사』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나³²⁾

28) 현채 역의 재간본에는 발행소인 보성관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29) 초판, 2판 발행 일자는 주시경 역, 『월남망국스』, 박문서관, 1908. 6. 15, 3판본 판권에 의함.

30) 리상익이 역술하고 현공림이 교정한 『월남망국스』는 아세아 문화사가 펴낸 『역사전기소설전집』 5권 영인본에서 표지, 목차, 판권지가 누락되어 발행연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일제하의 금서 33권』(『신동아』 1977년 1월호 부록), 254쪽에 나온 발행연월일을 참고하였다.

31) 김주현은 황성신문에 연재된 「독월남망국사(讀越南亡國史)」가 단재 신채호의 저작임을 고증하였다.(김주현, 「『월남망국사』 및 『이태리건국삼결전』의 첫 번역자」, 『신채호문학연구초』, 소명출판, 2012, 299-327쪽 참고.

32) 최원식, 「아시아의 연대 - 『월남망국사』소고」, 백낙청·염무웅 편, 『한국문학의 현대계 II』, 창작과비평사, 1983.

정환국, 「근대계몽기 역사전기물 번역에 대하여 - 『월남망국사』와 『이태리건국삼결

판본의 경우 달성광문사 판본은 지금까지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다. 광문사 발행의 『월남망국사』를 소개하기 위해 그것의 바탕본이라 할 수 있는 현채가 번역한 보성관 재간본의 판권부터 잠깐 살펴보기로 하자.

광무 11년 5월 27일 재간

정가 금(金) 신화(新貨) 이십오전

발행자 오영근

현공림

발매소 종로(鐘路) 대동서사(大東書市)

대광교(大廣橋) 고유상서사(高裕相書肆)

포진병(布塵屏)문하(門下) 김상만서사(金相萬書肆)

동구월변(洞口越邊) 주한영서사(朱翰榮書肆)

수동하우(壽洞下隅) 김효연서사(金孝演書肆)

현채 역 보성관 재간본 판권을 보면 현채가 번역한 『월남망국사』가 여러 서사(書肆)에서 발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필자 소장본의 재간본 『월남망국사』의 경우 “신구학문병판매소(新舊學文并販賣所) 대구본관전(大邱本官前) 김기홍(金琪鴻)”³³⁾이란 자주색 스탬프가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대구의 경우 김기홍이 세운 재전당서포에서 발매 대행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재전당서포는 『월남망국사』를 출간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에서 발간한 현채의 『월남망국사』를 판매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문사가 『월남망국사』출판에 직접 뛰어든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이는 영남지역에 『월남망국사』에 대한 지식인 독자들의 수요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채가 역(譯)한 달성광문사의 『월남망국사』는 보성관 『월남

진』의 경우, 『대동문화연구』 48, 2004.

정선태, 「번역이 몰고 온 공포와 전율-월남망국사의 번역과 ‘말년/망국’의 상상」, 『한국근대문학의 수렵과 발산』, 소명출판, 2008.

이종미, 「『월남망국사』와 국내 번역본 비교 연구」, 『중국인문과학』 34, 중국인문학회, 2006. 12.

33) 현채 역, 『월남망국사』, 1907, 93쪽

망국사』 재간본과 비교하면 번역 문장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내용의 행이나 면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새로 조판해서 인쇄했음을 알 수 있다. 달성광문사의 『월남망국사』에는 보성관 판에 없는 ‘광무 11년 정미(丁未) 청화절(淸和節) 인동(仁同) 장상철(張相轍)’이 쓴 「월남망국사서(越南亡國史序)」와 말미에 「부월남제독유영복격문(附越南提督劉永福檄文)」이 첨부되어 있다. 청화절(淸和節)은 음력 4월³⁴⁾이니, 「월남망국사서」는 장상철이 1907년 4월에 월남망국사를 간행하는 목적을 쓴 것이라 할 수 있다.

나라의 존망과 일의 성패에 있어 패사(稗史)를 읽어보면 비록 땅이 만 리나 떨어지고 세대가 천년 뒤일지라도 왕왕 몸소 직접 그것을 목도한 것처럼 마음에 부합되어 오히려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게 된다. 지금 6대주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 간혹 부강하여 위풍당당하게 타국을 내려다보면서 경쟁을 그치지 않는 나라도 있고, 간혹 쇠약하여 타국에 굴복하여 종묘사직(宗廟社稷)³⁵⁾이 엉덩이가 되는 나라도 있다. 그들은 장차 천명에 일임하고 “사람이 힘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 말하고서 모두 하늘이 부여한 자유의 의무를 잃어버리니, 육체는 살아있지만 기상이 죽어서 남의 부림에 빨리 나아가면서도 마치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니, 이것이 어찌 풀을 엮어 만든 인형, 나무를 깎아 만든 인형, 진흙을 빚어 만든 인형, 돌을 다듬어 만든 사람과 다르겠는가?

대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하는 것은 진실로 지금과 옛날, 멀고 가까움에 차이가 없다. 그러나 시국이 급변하여 (나라가 망함) 월남 한 나라에 그칠 뿐만이 아닌에 있어서라? 전후(前後)에 강직한 품성을 지닌 여러 선비들이 『월남망국사』를 번역한 것은 진실로 까닭이 있다. 옛날의 본보기가 있으니 뒤따르는 수레가 마땅히 경계로 삼아야 한다.³⁶⁾ 지금 장차 본 출판사가 (『월남망국사』를) 간행하여 배포함은 백성의 뜻을 공고히 함에 해가 되지 않고 물에 빠진 사람들을 한 번 도와 모두 구제하려는 것일 뿐이다.

광무 11년 정미년(1907) 청화절(淸和節, 음력 4월)에 인동 장상철(張相轍)

34) 홍성훈, 「청화절」, 『한국세시풍속사전』, 한국국립민속박물관 사이트, 2010. 11. 11. 갱신.

35) 원문에 나오는 ‘사옥(社屋)’은 사묘(社廟), 곧 사직과 종묘를 말한다.

36) 『대대례기(大戴禮記)』에 “앞의 수레가 없어진 것을 뒤의 수레가 경계로 삼아야 한다. [前車覆, 後車戒.]”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 쓰다.³⁷⁾

장상철은 누구인가? 장상철은 광문사 내 대동광문회의 회원이며,³⁸⁾ 김광제, 서상돈과 더불어 국채보상운동 발의에 가담한 발기인 중의 한 사람이다.³⁹⁾ 장상철은 ‘광문사 사원’으로 광문사가 발간한 『월남망국사』의 서문을 쓰거나, 『상업학』을 교열하면서 광문사의 출판활동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장상철의 「월남망국사 서」는 결국 광문사가 『월남망국사』를 펴내는 출판기획의 변(辨)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장상철의 서문을 볼 때 광문사가 『월남망국사』를 펴낸 의도는 분명하다. 이 당시 ‘강직한 품성을 지닌 여러 선비들’이 『월남망국사』를 여러 번 번역한 까닭이 월남망국의 원인과 결과가 월남한 나라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월남 망국을 본보기로 삼아 마땅히 타석지석의 교훈으로 삼고자 광문사가

37) 장상철의 서문에 실린 아래의 한문 원문을 번역한 것이다. 한문 원문은 원래 이어쓰기로 되어 있으나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끊어 띄어쓰기하였다. “讀釋史於國之存亡·事之成敗，雖地距萬里，世後千載，往往有契合如身親觀之，猶爲感激流涕也。現今六洲列邦之內，或富強而雄視，競爭不熄，或萎靡而屈服，社屋宮瀦。其將一任天數，而曰非人能力，都喪其天賦自由之義務，而肉生氣死，趣走駘役，如恐不及，是何以異於窮靈木偶泥人石漢也。夫惡惡善善之地，固無今古遐邇之別，而況時局之駸駸然，非止一越南者乎？前後血性之諸彥，繙譯越史，良有以也。前鑑攸在，後車宜戒。今且本社之刊布，不害爲民志鞏固，共濟胥溺之一助云爾。 光武十一年丁未清和節 仁同張相輶書” 장상철(張相輶), 「월남망국사서(越南亡國史序)」, 『월남망국사』, 달성광문사, 1907, 1쪽.

38) 대동광문회의 회장은 박해령, 부회장은 김광제, 회원은 서상돈, 장상철, 강영주, 심정섭, 김우근, 서병오, 윤하선, 정재덕, 이종정, 길영수, 이우열, 강신규, 정규옥, 추교정 등이다.

39) 「국채일천삼백만원보상취지발기인 대구광문사장 김광제 부사장 서상돈 등 공함(公函) 각도(各道)」란 제목으로 『대동보』 1호(대동보사, 1907.)는 7~8쪽에 1907년 2월 21일자 『대한매일신보』 기사를 다시 게재하고, 취지서 말미에 광무 11년 1월 31일(음 12월 18일) 광문사 사원 장상철(張相輶), 권석우(權錫禹), 강영주(姜永周), 이종정(李種楨), 김우근(金愚根), 최일홍(崔一弘), 김봉준(金鳳俊), 심정섭(沈廷燮), 강신규(姜信圭), 길영수(吉永洙), 이우열(李愚烈), 정규옥(鄭圭鈺), 박병옥(朴炳燬), 윤하선(尹夏璿) 등 발기인 명단을 덧붙였다. 이들은 대부분 대동광문회 회원으로, 사원이라 하였지만 광문사에 관여하였던 대구지역의 지식인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또 월남망국사를 간행 배포한다는 것이다.⁴⁰⁾ 광문사의 『월남망국사』 판권을 보면, ‘광무 11년 5월 일’이라 하여 출간 일자만 없애고 발행소·인쇄소를 ‘달성광문사(達成廣文社)’라 큼지막하게 표기하였다. 보성관 재간본이 광무11년 5월 27일 발간되었으니 출판 시기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보성관 재간본에는 없는 「부월남제독유영복격문(附越南提督劉永福檄文)」이 수록된 것을 보면⁴¹⁾ 달성광문사본 『월남망국사』는 보성관 초간본을 바탕으로 새롭게 조판하여 배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전기물인 『중국혼』이나 『월남망국사』의 출간은 김광제의 출판사업이 애국계몽활동이나 국채보상운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⁴²⁾ 『월남망국사』는 원래 월남의 애국지사인 망명객 소남자(巢南子)

40) 주시경 역의 『월남망국사』(박문서관, 1907. 11. 30.)는 달성광문서관(1907. 5.)보다 6개월 후에 나왔는데, 국한문본이 아닌 순국문 문체로 출간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시경 역 『월남망국사』의 서문은 박문서관 사장 노익형이 썼는데, 장상철의 서문과 유사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슬프다. 빅여년티로 서양의 강성하는 형제가 조슈밀듯 구름닷듯 동편으로 더피오매 아세아 여러 지방이 거진 다 나라의 망하고 인민은 노래가 되는지라. 그 화가 점점 극하여 우리나라에서 남편으로 바라보이는 월남국식지 불란서 사람의게 망하고 우리나라에서 북편으로 접한 동만주에는 아라사 군항을 비설하니 이제에 독립권을 보전하는 자는 대한과 일본과 청국뿐이라. 그러나 이 세나라도 조금만 잘못하면 몇시각이 못되어 마자 빅인종에게 멸함을 당홀지라.…… 월남이 망한 스기는 우리에게 극히 경계될 만한 일이라.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론 귀천남녀로쇼하고 다 이런 일을 알아야 크게 경계되며 시세의 크고 깊은 스실을 썩드라 우리가 다 엇더케하여야 이 환란 속에서 칭명을 보전홀지 칭각이 나라라. 이럼으로 한문을 모르는 이들도 이 일을 다 보게 하랴고 우리 서관에서 이곳치 순국문으로 번역하여 전파호노라.” 로익형, 『월남망국사 서』, 주시경 역, 『월남망국사』, 박문서관, 1907, 1-3쪽.

41) 보성관에서 발간한 현재의 『월남망국사』 초간본에는 양계초가 다른 지면에서 발표한 논설 「滅國新法論」(1901)과 「日本之朝鮮」(1904) 2편과 유영복(劉永福)의 「越南提督劉永福檄文」(1883)이 실려 있다. 그런데 유영복(劉永福)의 「越南提督劉永福檄文」은 보성관의 재간본이나 기타의 다른 번역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양계초의 글이 아니었기에 제외된 것으로 본다. 송엽휘, 『『월남망국사』의 번역 과정에 나타난 제 문제』, 『어문연구』 34-4, 2006 겨울, 186쪽.

42) 광문사 사장 김광제와 부사장 서상돈이 발의한 ‘국채일천삼백원보상취지서’에도 월남의 사례가 거론되고 있음을 볼 때, 『월남망국사』의 발간이 광문사가 행한 구국출판의 한 예임을 알 수 있다. “근세의 새 역사를 찾아보면 나라가 망하면 민족도

관 보이 쩌우(潘佩珠, 1867~1940)가 일본에 망명한 양계초를 방문하여 월남이 프랑스에 망한 이야기를 술(述)하고, 그것을 들은 중국의 양계초(梁啓超)가 찬(纂)한 것이다. 양계초가 찬하거나 저술한 『월남망국사』나 『중국혼』은 서양제국주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던 근대계몽기 동아시아의 대응과 방책을 제시한 책이라 할 수 있다. 1900년대 후반은 조선의 앞날을 한 치도 내다볼 수 없던 혼돈의 시기였다. 많은 지식인들은 베트남과 조선의 상황이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이고, 조만간 “망국을 상상”⁴³⁾할 수밖에 없던 시기였다. 그 결과 『월남망국사』는 그 당시 “독서계의 주목”과 “출판탄압의 표적”⁴⁴⁾이 되었던 것이다. 『월남망국사』나 『중국혼』은 광문사가 외세의 침탈, 즉 제국주의의 야욕장이 되어버린 위기의 현실 앞에 민족의 주체적 대응을 촉구하고자 기획한 도서라 할 수 있다. 광문사는 출판을 통해 근대계몽기의 지식인 또는 민중을 계몽하고자 하였다. 광문사의 출판활동은 앞에 제시된 출판목록에서 본 바와 같이 1906에서 1908년 사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김광제, 서상돈이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던 시기가 1907년임을 감안할 때 『월남망국사』나 『중국혼』의 출간은 국채보상운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광문사는 역사전기물 이외에도 다양한 출판을 시도하였는데 주로 서양의 근대지식 전파와 관련된 도서들이다. 이들 도서를 살펴보면 개화기에 세워진 신식학교에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들이다. 이 당시 교과용 도서들은 주로 서울 지역의 출판사에서 많이 시도하였는데, 대구의 광문사에서 『중등산학』

따라서 진멸(殄滅)된 것으로서 곧 이집트, 베트남, 폴란드가 모두 가히 증거가 됩니다.……토지는 한 번 없어진다면 자못 회복할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찌 베트남 등의 나라와 같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국채일천삼백만원 보상 취지 대구광문사장 김광제 서상돈씨 등 공함(公函)」, 『대한매일신보』, 1907. 2. 21. 번역은 『국채보상운동 책임을 다하다』(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2015), 31쪽을 따랐음.

- 43) 정선태, 정선태, 「번역이 몰고 온 공포와 전율-월남망국사의 번역과 ‘말년/망국’의 상상」, 『한국근대문학의 수렴과 발산』, 소명출판, 2008.
- 44) 최원식, 「아시아의 연대 - 『월남망국사』 소고」, 『한국근대소설사론』, 창작사, 1986, 215쪽.

(1907), 『상업학』(1908), 『경제교과서』(1908) 등을 발간하였다. 광문사는 처음부터 유학과 관련된 구식출판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정신을 담아내는 신식출판을 시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중등산학』은 융희원년(1907) 10월 1일 학부(學部) 검정도서로, 탁지부(度支部) 양지과(量地科) 대구출장소 수학교수였던 이원조(李元祚)가 편찬하고 김광제가 교열한 심상중학교 수학교과서이다. 상, 하 두 권이며, 심상중학교 학도들이 익혀야 할 수학의 제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그것과 관련된 많은 문제와 예제를 실고 있다. 『중등산학』의 경우 발행소는 대동보사(大同報社)이고 인쇄소는 달성광문사(達成廣文社)이다. 내지 2면의 「중등산학 서」에 ‘융희원년 10월 1일 달성광문사장(達成廣文社長), 황성대동보사장(皇城大同報社長) 석람(石藍) 김광제(金光濟) 근식(謹識)’이란 표기가 있는 것을 보면 대동보사와 달성광문사는 김광제가 동시에 관여하고 있는 매체 내지 출판사임을 알 수 있다.⁴⁵⁾ 표지에는 발행소인 대동보사를 표시하지 않고 ‘대구광문사인쇄’란 표기를 크게 드러내었다. 판권지에는 달성광문사, 표지에는 대구광문사라 표기한 것을 보면 이 당시 광문사는 사명으로 달성광문사와 대구광문사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광문사는 출판과 발매를 겸하던 재전당서포와 달리 출판만 하던 회사였다. 그런 까닭에 발매소는 대구는 물론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등산학』의 판권지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상권의 판권지에는 발매소를 대구본관전(大邱本官前) 김기홍(金基鴻), 경성광학서포(京城廣學書鋪) 김상만(金相萬)으

45) 대동보사는 1907년 5월에 잡지 『대동보(大同報)』 1호를 창간(통권 6호)하였는데, 1호의 경우 발행소는 대동보사, 인쇄소는 보문관(普文館), 월보(月報) 정가 15전으로 되어 있다. 판권지 「광고」란 제목 하에 월보 『대동보』가 다룰 내용 및 방향을 밝히고 있다. “본사 월보 주지(主旨)는 인민의무에 당행(當行)과 학문지식에 전보(前步)와 세계기문(世界奇聞)과 시사요점(時事要點)을 수집성편(蒐輯成編)하여 동포의 공익상쇄익(公益上裨益)을 면진(勉進)케 하며 현금(現今) 국채보상(國債報償)에 대하여 경향유지인(京鄕有志人) 취지서와 의연인(義捐人) 성명(姓名)과 금액계수(金額計數)를 무유편록(無遺編錄)하여 대동공현(大同供現)케 하오니 첨군자(僉君子)는 구람(媾覽)하시옵”, 『대동보』 1호, 대동보사, 1907. 5, 판권지 참고.

로, 하권의 판권지에는 서울의 광학서포 이외에 대광교 고유상(大廣橋 高裕相)까지 추가하고 있다. 광문사는 대구에 있는 김기홍의 재전당서포는 물론이고 서울에 있는 김상만의 광학서포, 고유상의 회동서관(匯東書館)과도 협약을 맺어 서책을 발매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세계가 크게 열려 삼라만상 중에서 형체가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형체가 없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몇 천만 억 개인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성문(聖門)의 육예지학(六藝之學)에서 산수(算數)가 그 중의 하나를 차지하는데, 말을 할 줄 아는 이 중에서 가르침을 받는 첫 과정에 나가는 사람은 대개 유형과 무형의 사이에서 계발을 받고자 한다. 그러나 옛날 구장(九章)의 산법(算法)⁴⁶⁾은 다만 그 대략을 발췌했을 뿐이고, 또 산판(算板)에 가득하게 산가지를 펼쳐놓아 그 번거로움을 이길 수 없었다. 그래서 산수의 정밀한 이치와 빨리 하는 셈법은 아득하여 쉽게 깨칠 수가 없었으니, 이것이 진실로 배우는 사람들의 한 가지 유감이 된다.

근세 이래로 문명이 날로 진보하여 이전에 계발하지 못한 바와 옛날에 발명하지 못한 바가 날로 새로워지고 달로 증가하였으니, 『신정산술(新訂算術)』과 『정선산학(精選算學)』 등과 같은 부류는 이전 구장의 산법과 비교할 때 일찍이 자세하면서도 세밀하고 간략하면서도 빠르지 아니함이 없으니 이 책들 또한 미비한 점이 있다. 그래서 겨우 심상소학(尋常小學)의 첫걸음이 될 뿐이었다.

이 때문에 이원조(李元祚) 군은 일찍이 해외에서 널리 공부한 선비로서 높은 단계의 기이한 산술(算術)을 깊이 연구하여 서명(書名)을 『중등산학(中等算學)』이라 짓고, 못난 나에게 부탁하여 교정을 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 이군의 정성스러운 힘에 감동하고 한편으로 학생들의 배움의 과정을 위하여 이에 (서문을) 새겨 부치니, 바라건대 교육계의 큰 수요가 있기를 바란다.

융희 원년(1907) 10월 1일에 달성 광문사 사장이자 황성대동보 사장인 석람(石藍) 김광제(金光濟)가 삼가 짓다.⁴⁷⁾

46) 황제의 신하인 예수(隸首)가 만든 산법(算法)이다. 방전(方田)·속미(粟米)·쇠분(衰分)·소광(少廣)·상공(商功)·균수(均輸)·영부족(贏不足)·방정(方程)·구고(句股)의 아홉이다.

위의 글은 『중등산학』에 실린 김광제의 서문이다.⁴⁸⁾ 근대계몽기 지식인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는 새로운 문명을 배우고 그것을 보급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유교적 관념론과 명분론에 빠진 조선 후기의 유학자들과 정치사상가들은 서구 과학지식으로 무장한 서구 근대문명을 기민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우(愚)를 범했다. 서양 근대문명이 제국주의자들과 더불어 동아시아로 밀려들어오기 시작하는 근대계몽기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근대 과학 문명과 실학(實學)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개화기의 신식학교에서는 역사, 정치, 법률, 경제, 지리, 생물, 산술, 천문학 등 제 분야의 교과용 도서를 교재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수학에 관한 새롭고도 적합한 교재의 발간이 시급한 때 김광제는 해외에서 공부한 박학지사(博學之士)인 이원조가 쓴 『중등산학』을 발간하였던 것이다. 『중등산학』 같은 근대지식을 전파하는 교과용 도서의 연속 출간은 김광제가 근대 출판인으로서의 역할과 출판의 방향을 정확히 잡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다시 말하면 김광제는 시대의 조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적합한 도서들을 공급한 애국계몽론자였다고 할 수 있다. 『경제교과서』와 『상업학』도 그러한 결과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경제교과서』는 일본 법학박사 和田坦謙三이 저술한 책을 이병태(李炳台)가 번역한 것이다. 1908년 4월 발간된 이 책은 교열자 김봉준(金鳳俊), 인쇄

47) 인용문은 김광제의 서문에 실린 아래의 한문 원문을 번역한 것이다. “世界大關，萬象森羅，寓目於有形之間，會心於無形之外者，未知其幾千萬億矣。故聖門六藝之學，數居其一，使其能言語者，爲受教之初程者，蓋慾其啓發於有形無形之間。然古者九章之法，但撮其大略而已，且布筭滿盤，不勝其煩，則其精蘊之理，堆捷之法，渺不易曉，此實爲學者之一憾矣。自近世以來，文明日進，前所未發，昔所未明，日新月增，如新訂算術·精選算學等類，較之於前日九章之法，未嘗不精而密，簡而捷，然此亦其未備者存焉。故僅可爲尋常小學之初程而已。是以李元祚君，曾以海外博學之士，深究大層之奇術，名之曰中等算學，付與不佞而校之。故一以感李君之誠力，一以爲學生之程度，茲付劖劂，以冀教育界之大要需焉。 隆熙元年十月一日 達成廣文社長 皇城大同報社長 石藍金光濟謹識”

김광제, 「중등산학 서」, 이원조 편찬, 『중등산학』 상권, 대동보사, 1907, 1쪽.

48) 『민국공법요략』의 서문 또한 김광제가 쓰고 있다.

소 대구광문사, 발행자 이병삼, 특매소 경성 광학서포, 발매소 경향(京鄕) 각 서포(書舖)로 되어 있다. 1편 서론에는 경제, 국민경제발달의 차례(次第), 경제학의 정의와 급기공용(及其功用)경제, 2편 재(財)의 생산에는 생산의 개념, 생산의 요소, 생산의 조직과 급기방법(及其方法), 3편 재의 교환에는 교환의 개념, 가치와 급물가(及物價), 화폐, 신용, 무역, 운수통신, 4편 재의 분배에는 분배의 개념, 지대(地代), 이자, 임금, 이윤, 5편 재의 소비에는 소비의 개념, 생산과 소비의 관계, 보험, 6편 재정에는 재정의 개념, 경비, 수입, 세계예산(歲計豫算), 공채(公債)의 각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다.⁴⁹⁾ 이를 통해 볼 때 『경제학교과서』는 근대를 구성하는 중심 인자인 자본주의 경제학의 일반 개념과 원리 등을 간명하게 다루고 있는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대계몽기 신교육의 교과목에서도 경제학이 중요시될 수밖에 없었는데, 『경제학교과서』는 경제학에 관한 개론류 교과서라 할 수 있다. 이 당시 많은 교과용 도서를 발간하고 있던 보성관(普成館)⁵⁰⁾에서 나온 『보통경제학』(1907)이나 『상업대요』(1908)도 대구 광문사의 『경제학교과서』와 유사한 서책이다. 대구광문사는 보성관의 『상업대요』와 유사한 교재용 도서인 『상업학』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상업학』은 융희 원년(1907) 10월 12일 달성광문사에서 발행한 것으로, 일본서를 장지연(張志淵)이 역술하고 광문사 직원이자 대동광문화 회원인 장

49) 和田坦謙三, 이병대 역, 『경제학교과서』, 대구광문사, 1908, 1~3쪽 목록.

50) 보성관은 개별 각론을 다룬 『화폐론』(1907)이나 『외국무역론』(1908), 『은행론』 등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상업대요』(1908)의 말미에 실린 「보성관 신간서적 광고」에 의하면 융희 2년(1908) 8월 15일 당시 보성관이 37종의 신간서적들을 출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동국사략』, 『동서양역사』, 『월남망국사』, 『세계일람』, 『초등소학』, 『상업대요』, 『신편박물학』, 『외교통의』, 『중등생리학』, 『오위인소역사(五偉人小歷史)』, 『가정교육학』, 『만국지리』, 『사범교육학』, 『신편대한지리』, 『상업법론』, 『비율빈전사』, 『보통경제학』, 『중등지문학』, 『비사맥전(比斯麥傳)』, 『농학초계(農學初階)』, 『심리학』, 『은행론』, 『회사법강요』, 『화폐론』, 『소물리학』, 『초등이화학(初等理化學)』, 『윤리학』, 『학교관리법』, 『천문학』, 『신편화학』, 『식물학 부도(附圖)』, 『농업신론』, 『행정법』, 『외국무역론』, 『농학입문』, 『정치학대강』, 『정학원론(政學原論)』

상철(張相轍)이 교열한 것이다. 관권지에 ‘황성포병하 광학서포 김상만(皇城布屏下 廣學書鋪 金相萬)’, 즉 광학서포를 발매소로 둔 것으로 보아 전국을 대상으로 판매한 서책이라 할 수 있다. 『상업학』은 전 2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의 내용은 상가(商家)에 입(入)하는 자의 명심, 자본, 개업 일개 인급(及)결사(結社)영업, 매매, 투기, 대리상인, 화폐급(及)이식(利息), 수형(手形)세계, 은행 은행가급(及)은행업, 각종취인소(取引所)급(及)기(其)득실, 해상보험, 생명화재급(及)각종보험, 창고업, 매교증서송장급제회계서(賣教證書送狀及諸會計書), 선박외국무역(船卜外國貿易), 선박대차계약서급선복증서(船舶貸借契約書及船卜證書), 부기(簿記), 각종상업기관, 파산 등이다.⁵¹⁾ 이를 통해 볼 때 『상업학』은 상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와 상업에 종사하는 자의 태도 등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

경술국치 후 광문사의 출판활동은 위축된다. 이는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광문사의 출판 경향이 식민통치의 주체였던 일제(日帝)의 언론출판정책과 부합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신문지법(1907), 출판법(1909) 등을 통해 언론, 출판의 자유를 옥죄기 시작하던 일제는 1910년 이후 더욱 검열을 강화하고 사상을 통제하게 된다. 이러한 외적 상황은 출판사 광문사의 성장을 가로막게 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김광제가 1917년 9월 10일 『동국풍아(東國風雅)』(상, 하)를 발간했다는 사실이다. 편집 겸 발행인은 김광제이지만 발행소는 경북 대구부 삼청당(三清堂), 인쇄소 경북 대구부 본정 일정목 41번지로 되어 있다. 광문사를 통해 계몽서적을 주로 발간하던 김광제가 『동국풍아』 같은 구식출판⁵²⁾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더구나 광문사

51) 장지연 역, 장상철 교열, 『상업학』, 달성광문사, 1907, 1~2쪽 목록.

52) 『동국풍아』는 최치원 이후 조선시대까지 명현(名賢)들의 한시를 모은 책으로, 조선시대 목판본으로 간행된 『청구풍아(靑丘風雅)』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책의 수요가 많았는지 대구지역에서 석판본으로 『대동풍아(大東風雅)』가 발간되기도 했다. 『대동풍아』는 1934년 8월 6일 건, 큰 2책으로 나왔는데, 저작 겸 발행자는 대구부 남정 132번지의 진희태(秦喜泰)이다. 인쇄소는 달성군 수성면 상동 231번지 교남서사인쇄부(嶠南書社印刷部), 발행소는 달성군 수성면 상동 227번지 청석당(廳石堂)이다.

란 출판사명도 사용하지 않고, 내용 또한 구식출판의 내용을 따르고 있다. 출판사로서 광문사가 했던 역할이 이 시기에 이미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출판을 통해 애국계몽운동과 서양 근대지식을 전파하고자 했던 김광제의 의욕이 좌절된 사례로 볼 만하다. 반면 처음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던 재전당서포는 여전히 남아있는 한문세대나 구독자층의 욕구를 수용하면서 고소설 딱지본 등⁵³⁾을 발간하면서 1930년대 중반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된다.

IV. 결론

대구, 경북 지역은 신라시대 향가나 조선시대 시조와 가사, 소설 등이 활발히 창작되고, 필사 또한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장소이다. 또한 조선후기에 접어들면서 종중(宗中)이나 사찰(寺刹), 서원(書院) 등에서 족보, 문집, 불경, 각종 유학 서적 등의 발간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대구는 경상감영이 주체가 된 영영판(嶺營版)의 산지로, 영남의 선비문화를 주도하던 정신적 거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배경은 근대 이후 서울을 제외한 다른 어느 지역보다 대구·경북 지역이 출판매체를 많이 생산한 지역으로 자리 잡게 만든 원인이 되기도 했다. 서책 출판과 연계된 대구·경북 지역의 출판문화 전통은 대구·경북 지역 근·현대출판의 원류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근대계몽기 대구지역의 출판문화에 대한 연구이다. 이시기 지역의 출판을 주도한 출판사는 재전당서포(在田堂書鋪)와 광문사(廣文社)라 할 수 있다. 중세와 근대가 혼재하고 있던 이 시기에 두 출판사 모두 근대적 영

53) 1930년대 들어서면서 재전당서포는 딱지본 형태의 연화자 고소설을 발간 또는 발매하였다. 재전당서포에서 발간한 딱지본으로 현재 『옥단춘전』, 『권익중전』, 『박효낭전』 등이 확인된다.

업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발간한 서적들의 목록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서로 간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재전당서포(在田堂書鋪)는 1910년 이전부터 대구의 김기홍(金琪鴻)이 경영한 출판사 및 서적발매소였다. 민간 출판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방각본의 출판과 서적 판매를 시도하여, 대구지역의 방각본 유통에 크게 기여한 점은 재전당서포의 거둔 성과라 할 수 있다. 재전당서포는 주로 유학서나 초학 교재류, 의학서, 방각본 고소설 등의 출판에 힘을 쏟았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목판본은 물론이고 연활자본 발간까지 시도하였다. 또한 다른 출판사의 판목을 구매하거나 빌려와 책자를 찍어내기도 하였다. 또한 그들이 출판한 서책을 팔기 위해 서울 등지의 여러 곳에 발매소를 두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재전당서포가 상업적 영리를 목적으로, 근대적 영업 전략을 구사한 출판사였음을 보여준다. 출판사로서 재전당서포는 방각본을 중심으로 한 구식출판을 지향하고 있었으나 판매대행, 즉 발매소로서의 재전당서포는 신구서적을 가리지 않고 판매하는 근대적 의미의 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광문사는 전통적 유학서나 실용서적을 출판하고 있던 재전당서포와 달리 근대계몽기의 주류 담론이었던 신교육이나 신문명과 관련된 교과용 도서나 애국계몽서적을 주로 발간하였다. 이러한 출판 경향은 애국계몽론자였던 사장 김광제(金光濟)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김광제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대구 광문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부사장 서상돈(徐相敦)과 함께 광문사 내에 대동광문회를 두고 애국계몽운동에 참가하는 한편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광문사의 출판활동은 1906에서 1908년 사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김광제, 서상돈이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던 시기가 1907년임을 감안할 때, 『월남망국사』나 『중국혼』의 출간 또한 이들의 애국계몽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광문사는 역사전기물 이외에도 다양한 출판을 시도하였는데 주로 서양의 근대지식 보급 내지 전파와 관련된 도서들이다. 이들 도서를 살펴보면 주로 근대계몽기에 세워진 신식학교에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들이다. 이 당시 교과용 도서들은 주로 서울 지역의 출판사에서 많이

발간하였는데, 대구의 광문사에서 『유몽회편』(1906), 『만국공법요략』(1906), 『중등산학』(1907), 『상업학』(1908), 『경제교과서』(1908) 등을 발간하였다. 광문사는 재전당서포처럼 유학과 관련된 구식출판이 아니라 『유몽회편』 이후로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신식출판을 시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광문사는 한편으로는 근대지식 보급을 위한 신식 학교의 교과용 도서를 기획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애국계몽의 전략을 구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중세와 근대가 충돌하고 있던 근대계몽기 대구의 문학 공간에서 재전당서포와 광문사가 수행한 역할은 이후 지역의 출판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경술국치 후 대구의 출판계는 민족자본과 일본자본이 경쟁하고 치츄 연합자가 목활자나 목판을 대신하면서 새로운 출판환경을 구축하게 된다. 근대계몽기 재전당서포와 광문사를 통해 마주쳤던 상업적 욕구와 계몽적 욕구가 일제강점, 해방,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어떻게 지속되는지, 또 출판의 제 양식이 어떻게 변모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후고의 남은 과제가 된다.

※ 이 논문은 2017년 6월 2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7년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6월 1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권미숙, 「20세기 중반 책장수를 통해 본 활자본 고전소설의 유통양상」, 『고전문학과 교육』 2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 395~439쪽.
- 김근수 편저, 『한국잡지개관 및 호별목차집』, 한국학연구소, 1973.
- 김봉희, 『한국개화기 서적문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9.
- 김주현, 「『월남망국사』 및 『이대리건국삼걸전』의 첫 번역자」, 『신채호문학연구초』, 소명출판, 2012.
- 대구경북인쇄조합45년사 편집위원회, 『대구경북인쇄조합45년사』,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6.
- 류준경, 「달관 방각본 연구」, 『한국문화』 35,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5, 57-87쪽.
- 류탁일, 「대구지방 간행 달관방각본에 대하여」, 『서지학연구』 3, 서지학회, 1988, 69~90쪽.
- 류탁일, 『완관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학문사, 1981.
- 민족문학연구소 편역, 『근대계몽기의 학술문예사상』, 소명출판, 2000.
- 박용찬, 「근대계몽기 대구의 문학장 형성과 우현서루」, 『국어교육연구』 56, 국어교육학회, 2014, 397~420쪽.
- 박용찬, 「출판매체를 통해 본 근대문학 공간의 형성과 대구」, 『어문론총』 55, 한국문학언어학회, 2011, 35~60쪽.
- 박태일, 「경북·대구 지역의 대중가사 출판」, 『열린정신 인문연구』 17(3), 원광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12, 261~311쪽.
- 박태일, 「대구지역 딱지본 출판의 전통」, 『현대문학이론연구』 66, 현대문학이론학회, 2016, 139~188쪽.
- 송엽휘, 「『월남망국사』의 번역 과정에 나타난 제 문제」, 『어문연구』 34-4, 2006 겨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83~204쪽.
- 이원주, 「고전소설 독자의 성향 - 경북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80, 557~573쪽.
- 이종미, 「『월남망국사』와 국내 번역본 비교 연구」, 『중국인문과학』 34, 중국인문학회, 2006. 12, 499~521쪽.

- 정선태, 「번역이 물고 온 공포와 전율-월남망국사의 번역과 ‘말년/망국’의 상상」, 『한국근대문학의 수렴과 발산』, 소명출판, 2008.
- 정환국, 「근대계몽기 역사전기물 번역에 대하여 - 『월남망국사』와 『이태리건국 삼걸전』의 경우」, 『대동문화연구』 48, 2004, 1~32쪽.
- 조항래, 『1900년대의 애국계몽운동 연구』, 아세아문화사, 1993.
- 차태근, 「량치차오(梁啓超)와 중국 국민성 담론」, 『중국현대문학』 45, 한국중국 현대문학학회, 2008, 1~34쪽.
- 천혜봉, 『한국서지학』, 민음사, 1997.
- 최원식, 「아시아의 연대 - 『월남망국사』소고」, 『한국근대소설사론』, 창작사, 1986.
- 최형욱, 「량치차오의 학술세계와 그 문학혁명운동」, 『오늘의 문예비평』 49, 2003. 5, 253~270쪽.
- 최호석, 「대구 재전당서포의 출판활동 연구」, 『어문연구』 34-4, 2006, 229~253쪽.
- 한기형 외, 『근대어근대매체근대문학』,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Abstract

A Study on the Publishing Activity and Characteristics of Jaejeondang-seopo and Gwangmunsa in the Modern Enlightenment Era

Park, Yong-chan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the publishing activity in Daegu in the modern enlightenment era. Since Daegu was home for ‘Gyeongsang Gamyong’s edition(嶺營板)’, it was the spiritual base that led ‘Sunbi(classical scholar)’ culture. Modern publications originated from those issued by Gyeongsang Gamyong, regional families or temples.

Leading publishing companies in Daegu were Jaejeondang-seopo(在田堂書鋪) and Gwangmunsa(廣文社). When we examine the list of publications and their contents, it is shown that there is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wo publishing companies. Jaejeondang-seopo, established by the publisher, Kim Gi-hong, was a company of both publishing and selling books. It usually published antique books about Confucianism with the purpose of commercial profit. Its main publications were books of Confucianism, textbooks for beginners, medical books, Banggakbon novels, etc. Gwangmunsa, established by Kin Gwang-je, usually published books of enlightenment including new education and culture. Kim Gwang-je was an intellectual and patriot leading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with Seo Sang-don.

Gwangmunsa published not only translations of historical biographies, such as ‘*The Fall of Vietnam(越南亡國史)*’ and ‘*The Spirit of Chinese(中國魂)*’, but also textbooks related to disseminating modern knowledge. Thus, the company was not related to earlier publications of Confucianism but attempted a new type of publishing that included the new spirit of the times.

With the desire of business and enlightenment, Jaejeondang-seopo and Gwangmunsa created various spaces of publishing culture in the modern enlightenment era. They had an important role in cultural spaces in Daegu which had a conflict between the middle and the modern age.

Keywords : Jaejeondang-seopo, Gwangmunsa, Daegu, publishing activity, Banggakbon(坊刻本), enlightenment movement, Gyeongsang Gamyong’s edition, the Modern Enlightenment Era